

# KIA 가을야구, 외야강화에 답 있다



어깨 약해 베이스 허용... 잇단 역전패

공격 강화에 초점 맞추니 수비력 '하위권'

든든한 외야가 승리를 지킨다. 예상과 달리 후반이 들어 속절없이 '호랑이 군단'이 무너졌다. 하위권의 LG와 한화를 상대로 4연패를 당했고, NC에게는 연달아 역전패를 당하며 싸늘이 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이 한 장 사이의 세밀함에서 걸린 승패였다. 잇달아 외야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번번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내쳤다. 4위 롯데가 주춤하고 있었던 만큼 더 빠른 패배들로 남는다.

지난달 24일 LG와의 경기에서 나온 실책이 승부의 향방을 갈랐다. 2-2로 맞선 8회초 1사 1루에서 박용택의 안타 타구를 쫓던 우익수 신중길이 공을 뒤로 빠트리면

서 분위기가 LG로 기울었다. 팽팽하던 순간 나온 작은 실수로 대거 8회 4실점을 한 KIA는 2-6으로 졌다.

7월2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중견수 이대형이 실책을 기록했다. 6회 3-3으로 맞서 1사 만루. 조인성의 타구를 처리하던 이대형이 공을 잡았다 놓치면서 2-3루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순식간에 승부는 3-7까지 벌어졌고, KIA는 3연패에 빠졌다.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익수 이종환의 불안한 움직임도 외야의 고민을 더했다. 7월31일 NC와의 경기에서 슬라이딩 캐치 실패로 테임즈에게 싸늘이 3루타를 내준 이종환은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타구 판단 실수로 삼성 포수 이지영의 3루타를 만들어줬다.

5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우익수로 나선 김다원도 수비 실수로 포수 양의지를 3루까지 보내는 등 외야가 실재없이 흔들렸다.

이 실수들이 모두 패배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KIA의 수비 전력과 전략이 아쉽다.

KIA 외야진은 '강견'과는 거리가 멀다. 환상의 보살을 선보였던 신인 박준태는 2군으로 내려간 상황. 어깨가 약한 외야진은 상대 타자·주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베이스까지 허용하면서 투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김주찬이 발바닥 통증으로 수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면서 나지완이 공·수를 책임지고 있다. 화끈한 타력의 이종환도 공격 강화 측면에서 외야에 투입되는 등 KIA의 수비력은 하위권으로 꼽힌다. 공격을 통한 기선제압이라는 '선공' 전략은 잇단 수비 실수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외야진들의 집중력과 벤치의 수비 강화 전략이 절실한 KIA 타이거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챔피언스 필드 '물놀이 세상'

국내 최초 외야에 수영장·미끄럼틀 설치...9·10일, 16·17일 행사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세상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휴가철 주말 흥경기를 맞아 국내 최초로 야구장 물놀이 축제를 연다.

'고품질 록 앤드 필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핫 서머 페스티벌(Hot summer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9·10일 롯데전과 16·17일 넥센전에서 진행된다.

야구장에서 하는 물놀이가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 KIA와 금호타이어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미니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을 설치한다. 미니 수영장은 가로 12m 세로 5m 규모이며, 물 미끄럼틀은 높이 3m, 길이 8m 크기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물놀이



장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20명-20분-1회' 방식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이 설치되고 진행요원도 배치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외야 테이블석인 에코다이나믹스 가족석에는 여름 햇빛을 막아주는 비치 파라솔이 설치된다.

경기장 외부 제2출입구와 제3출입구 사이에는 가로·세로 8m 규모의 미니 보트 수영장이 설치돼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운영된다. 제1안내소 앞에는 더위를 식혀줄 터널 형식의 '워터 게이트'가 설치된다.

물풍선 던지기 및 물총 싸움 등 다양한 물놀이 이벤트와 치어리더들의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항공권과 팸핑수 교환권 등 여름 특화 상품도 마련됐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팬들이 야구를 보면서 시원한 물놀이도 할 수 있게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팬 여러분들이 야구와 물놀이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걸맞는 '고품질 록 앤드 필 프로젝트'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3위 정조준

K리그 챌린지...10일 안양 원정경기

K리그 챌린지 리그가 2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순위싸움에 재돌입한다. 광주 FC는 FC 안양을 상대로 3위 도약을 노린다.

광주 FC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안양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반환점을 둔 챌린지리그는 이제 16라운드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 시즌 승강제 규정이 바뀌면서 챌린지리그 우승팀은 곧바로 클래식 리그로 승격을 한다.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4위 안에 들어 2~4위 팀과의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광주는 현재 8위(6승7무7패·승점 25)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3위 강원(7승5무8패·승점 26)과 승점 차는 1점에 불과하다. 21라운드 결과에 따라서는 광주의 순위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광주에게는 원정 징크스를 깨는 게 중요하다. 홈에서 5승3무2패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원정에서는 1승3무5패를 챙기는데 그쳤다.

안양과의 맞대결에서는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승부에서 두 팀은 1승1패씩을 챙겼다.

공수의 균형이 중요하다. 광주는 앞선 대결에서도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고도 세트피스 혹은 역습에 무너졌다. 침착한 경기 운영 속에 빠른 공격으로 안양의 수비를 흔들어야 한다.

광주는 휴식기 동안 대학팀들과 연습경기를 갖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조선대와의 경기에서는 8-0 대승을 거두고, 호남대와의 경기도 4-0으로 이겼다. 12골을 넣는 동안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공·수 조율을 끝냈다.

김호남이 3골2도움을 올리며 절정의 감각을 선보였고, 디에고도 3골 1도움을 올렸다. 송승민, 윤상호, 정호정, 김유성, 전준형, 김우철도 골 맛을 봤다.

최근 안양의 수비진은 5경기 연속 실점(10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빠르고 과감한 공격으로 안양 수비진을 흐트러놓는 게 필승 전략이다. 역시 승리의 키는 김호남이 쥐고 있다. 김호남은 19라운드 수원전에 이어 20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에 몰이 올랐다. 연습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김호남의 발끝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던 타이거우즈가 7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내 벵커샷 연습을 하고 있다. 우즈는 "허리 통증도 없고 샷도 매우 좋다."며 2014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